



##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에 이영희 가야금 명인 “국악계 대들보 양성에 여생을 다할 것”



제31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이영희 명인이 제자들과 거문고 연주를 하고 있다.

우리 국악의 전승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 재단이 제정한 제31회 방일영국악상이 올해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이영희(86) 명인에게 주어졌다.

11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시

상식에서 이 명인은 상패와 상금 8000만 원을 받았다.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수상자 이 명인은 군산 여중 시절 승무와 살풀이를 배우며 무용에 먼저 입문했고, 이덕열 선생으로부터 가야금과 단소·양금을 배웠다. <2면에 계속>

### 서중회 2025년 정기총회 3월 19일(수) 개최

2025년도 서중회 정기총회가 3월 19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회장단은 그간 코로나 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총회가 모처럼 재개되는 만큼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이 방일영국악상 제31회 수상자 이영희 명인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이후 이운조 명인에게 가야금 산조를 익혔다. 당시 국악과를 찾기 어렵던 시대라 이화여대 사회학과에 먼저 진학했고 당대의 가야금 명인인 김윤덕 선생으로부터 가야금 산조와 거문고를 사사했다. 이후 그는 1991년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와 병창 보유자가 됐다.

1968년 멕시코시티올림픽, 1972년 뮌헨올림픽 등 해외 무대에서 일찍이 격조 높은 우리 소리를 알려온 1세대 대표연주자로 꼽힌다.

특히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12년간 일하면서 젊은 국악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넓혔고, 해외입양아를 위한 전통문화 교육사업과 국악인의 화합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큰 족적을 남겼다.

심사위원장인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은 “이 명인은 꾸준한 연주와 후학 양성을 통해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

를 다른 유파 가야금 산조와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이 명인이 세운 가장 큰 공적입니다. 이 명인의 남다른 열정과 끈기 없이는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며 선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 명인과 함께 동료 교사로 재직했던 심형무 전 국립전통예술학교 교장은 축사에서 “이화여대 출신인 이 선생과 같은 고학력자가 1960년대 국악 교육에 헌신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며 “국악계의 역사이자 거목인분”이라고 했다.

이 명인은 수상소감에서 “방일영국악상 수상에 힘입어 국악계 동량이 될 제자 양성에 여생을 다하려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고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상금 8000만 원을 어디에 기부할까?’가 먼저 떠올랐다”고 했다. “또 하나의 바람이라면 개인종목의 전수교육관 건립과 국가에서 관장하는 재인칭이 만들어져서



역대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심사위원, 변용식 재단 이사장과 조선일보 방준오 사장이 자리했다.



국악을 제대로 전승하여 다재다능한 명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명인은 2022년 예능 보유자 양성을 위해 200억 원 상당의 개인 땅과 집을 국가유산청에 기부한 바 있다.

시상식을 마친 뒤 이 명인과 제자들이 ‘김윤덕류 가야금 산조’와 창작곡 ‘한오백년 3중주’를 들려주는 축

하 공연 시간도 가졌다. 이 명인의 변화무쌍한 장단 변주와 깊고 힘 있는 농현에 관객들의 박수와 감탄이 터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역대 수상자인 이생강(12회), 이춘희(21회), 이재숙(24회), 신영희(26회), 조순자(29회), 정대석(30회) 명인 등과 심사위원 윤미용 전 국립국악원장, 김영재 명인, 김영운 전 국립국악원장, 임미선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내빈으로는 이종식 전 국회의원, 조연홍 전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김중채 임방울국악진흥회 이사장, 임일남 전 남부대 총장, 박범훈 동국대 석좌교수, 김청만·김광숙·이춘목·강정숙·이호연·박재희·최경만 명인,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배우 견미리 씨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변용식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준 선생님

## ‘2024 올해의스승상’ 7명의 교사 시상



‘2024 올해의스승상’ 수상자들이 참석 내빈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변용식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올해의스승상’ 수상자들, 뒷줄 왼쪽부터 김도연 ‘올해의스승상’ 심사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준오 조선일보사 사장



우리 재단과 교육부, 조선일보사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스승을 발굴해 그 공로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공동 제정·시상하는 ‘2024년 올해의스승상’

시상식이 12월 17일 조선일보사 편집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7명의 선생님들이 수상해 2002년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지금까지 254명의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다.

‘올해의스승상’ 후보 신청은 각 학교장의 ‘기관 추천’ 과 동료 교원·학생·학부모의 ‘국민 추천’ 을 통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받았다. 총 33명의 후보자

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14명을 선정했고, 이들에 대해 근무지를 찾아 공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주위 여론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7명의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0만 원씩이 수여됐다.

영예의 수상자는 강수정(경남 병곡초), 류은실(구미 문성초), 신문창(부산자동차고), 신영섭(경북 유강중), 이혜진(대구불로초), 최윤진(대구황금초), 한설(전주화정중) 교사이다.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수상하신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식의 성장을 도우며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며 “그 헌신과

## ‘2024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 공적



**강수정 경남 병곡초 교사**  
 \*삶과 얹이 일치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30종의 그림책 출판  
 \*학부모, 학생, 교사들과 소통해 교육  
 공동체 회복해 작은 학교 살리기

\*다양한 진로 활동 프로그램 마련으로  
 특수반 학생의 적성 개발



**류은실 구미문성초 교사**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주는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 현장 정착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위한 과학실  
 안전 모델 운영 및 현대화 사업

**이혜진 대구불로초 교사**  
 \*한글 미해득학생, 문맹 학생,  
 다문화 학생에게 맞춤형 한글 교육  
 \*전 학년 문해력 특화 수업으로  
 교육 격차 해소



**신문창 부산자동차교 교사**  
 \*미래 자동차 산업에 맞춰 실습 환경과  
 커리큘럼 업그레이드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실험·실습 시스템 운영

**최윤진 대구황금초 교사**  
 \*과학을 바탕으로 한 진로 교육,  
 늘봄학교 운영을 통한 생활지도  
 \*상담 트라이앵글과 교과 만들기  
 프로젝트로 인성교육 실천



**신영섭 경북 유강중 교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체·인·지  
 (體·仁·智)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한설 전주화정중 교사**  
 \*학생부장 업무를 도맡아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실천  
 \*마음치유와 생명지킴 운영학교  
 진행으로 학생 생활교육 활성화



사랑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며 그 중심에 바로 선생님 여러분이 계십니다. 오늘 수상하신 선생님들의 값진 경

험과 전문성이 학교 현장을 회복시키고 수업 혁신을 일으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심사위원장인 김도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상자들의 가족, 동료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했다.

##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방준오 사장 취임



데 여러분 덕분에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방 회장은 사장 재임 때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 ‘쓰레기를 줄입시다’ 같은 캠페인으로 한국 사회를 선도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신문업계 최초로 개인연금과 주택자금 대출을 만들고 연수특과원제와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사원들의 복지

향상과 기자역량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 재단의 방상훈 이사와 방준오 이사가 지난 3월 4일 조선일보 회장과 사장으로 각각 취임했다.

3월 5일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취임식에서 방상훈 회장은 “6번 정권이 바뀌고 7명의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조선일보는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며 “술한 곡질이 있었지만 외압에 굴하지 않은 기자들, 헌신적으로 재정독립을 지켜낸 경영직 사원들 덕분에 정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방 회장은 “31년 전 ‘훗날 조선일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고, 선대 사장님들에 이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장으로 기록되고 싶다’ 고 했는

방준오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제 역할은 열린 자세로 선후배 임직원들과 소통하고 뜻과 방향을 일치시켜 사원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배님들이 쌓아놓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04년 역사의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걱정은 끝이 없지만 두렵지는 않다. 조선일보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보아왔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재)통일과나눔’ 펀드에 3억 원 기부

차세대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 장학 및 교육 사업으로...

재단은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12월 4일 ‘통일과나눔’ 펀드에 3억 원을 기부했다. 2015년 3억 원, 2016년 1억 원, 2017년 2억 원, 2018년 3억 5천만 원, 2020년 1억 원을 기부한 데 이은 추가 기부이다.

이 기부금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차세대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 장학 및 교육 사업에 쓰일 목적으로 지정 기탁된 것이다.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통일인재양성 기금 기부를 해 주신 방일영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금은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 상당수가 생계 문제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멘토링 장학생 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탈북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생



기부금 전달을 마치고 ‘(재)통일과나눔’ 이영선 이사장과 재단 유광선 사무국장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업은 운용하고 있지만 더욱 폭넓고 다양한 탈북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펼치는 ‘(재)통일과나눔’에 기부를 해 오고 있다.



## 서중회비 납부 바랍니다

서중회원 여러분, 2025년도 연간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상은 서중회원 중 졸업 후 5년차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 ❖ 회비는 연간 10만 원입니다.
- ❖ 보내실 통장은 신한은행 110-362-284657로 예금주는 총무인 ‘김영철’입니다.  
송금 시 성함과 기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 경조사 시 30만 원이 지급되오니 총무 김영철(010-3503-921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용 선생 가야금 연주회

윤미용 방일영국악상 심사위원장이 11월 14일 국립국악원 우편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독주회를 겸한 연주회를 가졌다. 함동정월류 가야금 산조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한 이날 공연은 정통 가야금 정악의 선율과 주법이 돋보인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 김영재 선생 '3·1문화상' 수상

제22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이자 방일영국악상 심사위원인 김영재 선생이 3월 1일 서울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5회 '3·1문화상' 시상식에서 거문고 산조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예술상을 수상했다.



## 조순자 선생 「여창가곡 열여섯집」 출간



제29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가곡 명창 조순자 선생이 지난 7월 18일 경남 창원 가곡전수관에서 가곡 총보 「여창가곡 열여섯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가곡 총보는 일제강점기 이왕직아악부가 오선보 형식으로 발행한 「만년장환지곡」이후로는 처음으로 서양식 오선보가 아닌 전통적인 정간보로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선생은 “이 총보가 가곡에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6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이보형 선생 별세

제16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인 이보형 선생이 지난 11월 13일 별세했다. 고인은 국내 판소리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1960년대부터 200여 편의 민속악 논문을 발표하여 민속악을 학문적 경지로 끌어올렸으며 한국고음반연구회를 이끌며 사라져가는 우리의 옛 소리를 발굴하는 등 국악사의 학문적 발전에 평생을 기여했다.



##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연세대 명예 언론학 박사 학위 받아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 그것이 저의 소명”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 연세대학교 명예언론홍보영상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담사를 하고 있다.

우리 재단 이사인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 지난 10월 29일 연세대로부터 명예언론홍보영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실 보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문을 만드는 것,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자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요 책임이었습니다.”

격랑의 시대를 뚫고 걸어온 방 회장의 반세기 언론 외길에 학계 최고 권위의 명예가 부여된 것이다. 연세대가 언론학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방 회장이 처음이다.

1970년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로 입사한 방 회장은 주미특파원, 기획관리실장, 전무를 거쳐 1993년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한 이후 31년 동안 언론 경영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올 3월에 회장으로 선임됐다.

연세대 경영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운동섭 연세대 총장은 “미디어 대 격변의 시기에 조선일보를 명실상부한 종합미디어그룹으로 발돋움시킨 방 회장은 권력 비판뿐 아니라 환경과 통일

등 사회적 어젠다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학위 수여를 의결한 김현철 연세대 대학원장은 “첫째도 팩트, 둘째도 팩트를 강조해온 방 회장은 외부로부터의 시련에도 조선일보가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는 데 든든한 울타리가 돼왔다”고 말했다.

방상훈 회장은 답사에서 “제가 신문사 경영인이자 언론인으로 살도록 이끌어준 두 가지 가르침은 증조부인 계초 방응모 선생의 언론 정신과 할머니의 기독교 정신”이라고 했다. “두 분의 가르침이 저를 인내하게 했고, 여러 시련과 시험에도 언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한 바탕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언론학자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2001년 김대중 정권의 혹독한 세무조사로 탄압을 받았지만 방 회장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초도 이겨내겠다고 하면서 기자들이 권력과 금전의 유혹에 굴하지 않도록 탄탄한 경영으로 편집을 뒷받침하는 조타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인사, 조선일보 및 TV조선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회장이 수여식이 끝난 후 조선미디어그룹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41회 최은희여기자상에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

“김 선임기자의 인터뷰는 독자 공감을 얻는 풍자 저널리즘”



올해의 수상자인 김윤덕 기자(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역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단이 후원하는 제41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이 10월 1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가 상을 받았다. 상금 2000만 원은 우리 재단이 지원했다.

김 선임기자는 월간 ‘샘터’와 경향신문을 거쳐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김 선임기자는 콩트라는 형식과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자신만의 장르를 구축했고, 34년간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줌마 병법’을 비롯해 다양한 칼럼과 인터뷰로 풍자 저널리즘의 새 영역을 개척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축사를 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김

기자의 인터뷰는 현안과 이슈는 물론 그 사람의 내면과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이끌어내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낸다”며 “정통의 정통 위에 구축한 풍자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기자는 수상소감에서 “올해는 최은희 기자가 조선일보에 입사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라며 “대학 시절 전투적 페미니스트였지만 여성과 남성이 미워하지 않고 역지사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변화시킬 해법을 유머와 위트로 풀어보고자 작은 실험과 도전을 했다”고 말했다.

## 제36회 이중섭미술상 시상식

‘색의 미술사’ 서양화가 김봉태 작가 수상  
당대 주류 예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 구축



을 다시 플렉시글라스로 전환하면서 일상적 소재의 발견을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김봉태 작가는 수상 소감에서 “수년 전 이중섭미술상 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겐 심사만 맡기고 상은 안 주냐며 동년배 작가들이 닳두리를 한

우리 재단이 시행하는 이중섭미술상 제36회 시상식 겸 수상기념전 개막식이 11월 7일 서울 광화문 ‘아트조선프에이스’에서 열렸다. 올해의 수상자인 김봉태는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적 형태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온 ‘색의 미술사’라 불린다. 1960년대 초반 뉴욕 유학길에 올라 동서양의 정서를 아우르는 작품을 실험했고, 1980년대 중반 귀국한 이후에도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원색과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한 평면과 입체의 조형세계를 탐구했다. 이번 수상 기념전 ‘축적(Accumulation)’에는 상자 시리즈 21점이 나왔다.

축사를 맡은 심사용 서울대 미술관장은 “선생님의 예술은 국경을 넘나들면서도 당대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편승하지 않고, 자신만의 조형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로 초지일관해 오셨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인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이중섭이 피란 시절 담배 은박지에 첩로 드로잉한 것처럼 김봉태는 버려진 종이상자를 활용해 작업을 하고 그것

적이 있는데, 막상 받고 보니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기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책 사이에 끼워 소장하셨는데 작고하신 후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각가 정현, 화가 김종학, 김영순, 김선두 등 이중섭미술상 운영위원,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찬동 전 수원시립미술관장, 진취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등 심사위원, 역대 수상자 황용엽·김경인·정종미·오숙환·배병우·곽훈·윤동천 씨, 배순훈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장경수 장육진미술문화재단 이사장, 방준오 조선일보 사장, 변용식 재단 이사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36회 이중섭미술상 시상식. 왼쪽부터 김종학 심사용 김선두 신양섭 윤동천 오숙환 정현 김영순 김봉태(수상자) 오광수 정종미 김경인 황용엽 강승완 곽훈 김찬동 배병우.

## 제32회 임방울국악제 방일영상 김윤아 씨

“방일영상 수상을 계기로 계속 더 정진하겠습니다”



방일영상을 수상한 김윤아 씨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은혜 씨

재단이 후원하는 제32회 임방울국악제 결선 무대가 10월 9일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려 판소리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정은혜 씨, 우리 재단이 수여하는 최우수상인 방일영상에 김윤아 씨가 뽑혔다.

방일영상을 수상한 김윤아 씨는 13세 때부터 원하던 소리 공부를 시작했고, 이수복, 송순섭, 유미리, 안숙선 등 다양한 명창을 스승으로 사사했다. 김 씨는 이날 판소리 명창 본선 무대에서 별

주부전의 기반이 된 수궁가 중 ‘약성가’ 대목을 불러 호평을 받았다.

“방일영상을 통해 계속 더 정진하다 보면 젊은 국악인들을 위한 무대가 마음껏 주어지는 날이 곧 올 거란 응원과 희망으로 삼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임방울국악제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한을 소리로 달랬던 임방울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는 국내 최대의 국악 경연 대회다.



정유화 씨

## 재단 신입 사원 정유화 씨

우리 재단 신입 사원으로 정유화 씨가 채용되어 지난 10월부터 근무 중이다.

정유화 씨는 대학에서 세무 행정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사무소에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 씨는 “경영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행사 업무 및 회계 관리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제52기 방일영장학생 18명 선발

## 금년부터 이과계열 장학생 선발 시작

재단은 11월 21일 제52기 방일영장학생 18명을 선발해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종전보다 3~4명 정도 늘었다. 올해 선발의 특징은 문과 계열만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이과 계열 장학생도 선발했다는 점이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의 흐름

에 대처하고자 전공 대상을 다양화하여 보다 폭넓은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제52기 장학생들은 아래와 같다.

				
권우림 연세대 경영학과	김은우 서울대 경영학과	김재원 고려대 경영학과	박민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서수연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손국주 연세대 화학과	손지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신현서 서울대 경제학부	오울 서울대 경영학과	윤석현 고려대 경제학과
				
윤재인 서울대 인문계열	이윤솔 서울대 수리과학부	임원상 고려대 물리학과	장준우 연세대 경영학과	정민성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물리학 전공
				
조유선 서울대 인문계열	최서윤 고려대 경영학과	최효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2024년도 언론인 저술지원자 29명 선정

## 상반기 16명, 하반기 13명

재단은 전·현직 언론학자가 대상인 2024년도 저술지원 대상자를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3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 【 2024년 상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



**곽이람**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대우



**권만우**  
경성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권선무**  
전 문화일보 기자



**김연수**  
TBS 연구위원



**김재홍**  
연합뉴스 전국부 선임



**김정훈**  
CBS 사회부장



**백우진**  
전 포브스코리아 편집장



**송의달**  
서울시립대 융합전공학부  
초빙교수



**신방실**  
KBS 기상전문기자



**양선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이기원**  
조선일보 자신팀장



**이진희**  
전 한국일보 부사장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장



**정일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정진석**  
한국외대 명예교수

**\*언론인 저술지원금 800만 원으로 인상**

재단은 정기이사회에서 출판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저술지원금을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키로 결의했다.

**【 2024년 하반기 저술지원 대상자 】**



**김현석**  
KBS 연구위원



**김형택**  
뉴스1 편집위원



**맹수열**  
국방일보 취재데스크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오명철**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오종찬**  
조선영상비전 사진부장 직대



**이계진**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



**이만형**  
인덕대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이영훈**  
울산 MBC 편성제작국장



**정위용**  
동아일보 기획위원



**조영미**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최형석**  
조선일보 총무팀장



## 강원도 홍천에서의 1박 2일 여름수련회

워터파크, 바비큐, 볼링, 노래방,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우애를...

방일영장학회 수련회가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6월 21일부터 1박2일간 치러졌다. 대부분의 학교가 직전에 학기가 끝난 만큼 장학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련회에선 그네 타기, 양 먹이주기, 레이싱, 워터파크와 같은 다양한 체험을 하고 바비큐 등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밤에는 간단한 음주와 함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평소의 월례회와는 달리 장학생끼리의 활동이 주를 이뤄 서먹서먹했던 장학생 간의 우애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설렘과 기대

아침 스페이스 라운 앞 로비로 비몽사몽한 몸을 이끌고 장학생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다. 평소에 강연을 들으며 자주 오는 장소였음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 틈새에 끼어 도착한 아침의 스페이스 라운은 어딘가 색다른 느낌이었다. 장학생들이 모두 도착하자 김밥을 먹고선 바

로 버스를 타고 비발디파크로 향했다. 아직 서로 잘 알지 못했기에 버스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려 숙소로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서 다 함께 곤돌라를 타고 슬로프 정상으로 향했다. 슬로프 정상은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장학생들은 네 명씩 짝지어 정상 끝자락에 위치한 거대한 그네로 향했다. 그네에 올라타자 그 앞에 위치한 푸른 두릉산과 맑은 하늘이 그림과 같이 펼쳐졌다. 그네가 움직이면서는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





다. 이후 저녁시간이 될 때까지 루지, 레이싱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즐겼다. 이 과정에서 아침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는 어디갔냐는 듯이 이미 장학생들은 가까워져 있었다.

### 수련회의 밤

레크리에이션으로 기진맥진해진 장학생들을 위해 저녁식사는 든든한 바비큐 파티로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된 많은 고기는 금세 사라졌고 재단을 거덜 내보겠다고 배불리 먹은 장학생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다. 이후 불링장과 노래방을 들른 뒤 마트에서 안줏거리와 술을 사 다같이 한방에 모였다. 간단한 음주와 함께 즉석에서 만들어낸 게임을 하면서 밤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그렇게 새벽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둘씩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잠에 빠진지 두세 시간이 지났을까 조식 뷔페를 먹기 위해 맞춰 놓은 알람이 울렸다. 어제와 같이 비몽사몽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식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잠시 동안의

기다림 이후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서 어젯밤 못다한 얘기를 하며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장소가 워터파크였기에 패념치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워터파크로 향하여 파도풀과 워터 슬라이드를 즐겼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워터파크에서 나오니 다행히도 비가 그쳤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리조트 내에서 불고기 전골을 먹고서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다들 단잠에 빠져 돌아가는 버스 안도 매우 조용했다.

###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준 재단에 감사

월례회에서 수련회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던 만큼 이미 수련회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음에도 그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는 수련회였다. 그뿐만 아니라 장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역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장학생과의 교류는 앞으로 서로의 미래에 소중한 인연이 되어줄 것이다. 또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재단에 대한 감사함도 빼놓을 수 없다.

어떤 장학재단이 좋은 장학재단인가? 재단은 보통 장학생들에게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을 제공한다. 전자는 장학금, 후자는 이미 사회에 나가 열심히 활동 중인 선중회 선배님들, 매달 뜻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월례회 연사님들, 같이 활동 중인 장학생들로 대표되는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이다. 이번 수련회는 장학생들과 1박2일간 다양한 활동과 대화를 하며 방일영문화재단으로부터 대가 없이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어떤 장학재단이 좋은 장학재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방일영문화재단이다.

정리 박현민<서울대 심리학과 2학년 · 장학회 51기>



## 방일영장학회 장학증서·졸업기념패 수여식



방일영장학회 2024년도 신입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과 졸업생에 대한 졸업기념패 수여식이 2월 15일 조선일보 임원 및 간부, 장학회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일보사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제51기 학부 장학생 15명과 제14기 탈북장학생 9명, 졸업 장학생 14명이 장학증서와 졸업기념패를 받았다. 변용식 재단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는 ‘방일영장학회’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장학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다”며 1974년 설립된 방일영장학회의 장학 정신과 전통을 소개했다. 또 설립자 방일영 선생께서 생전에 장학생들에게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학연을 통해 벗과 지기를 얻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피보다 더 진한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도 방일영장학회의 일원이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일영장학회를 통해서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여식을 마친 뒤에는 코리아나호텔로 자리를 옮겨 신입생 환영회와 졸업생 환송회가 이어졌다.

정익상 서중회장(장학회 17기)과 현종찬 변호사(장학회 2기), 최성환 고려대 교수(장학회 4기)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고 졸업생들의 졸업 소감, 신입생들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회 연중 일정 안내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 2025년 방일영장학회 졸업생들 진로

- 이세빈(45기) 서울대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진학
- 이새롬(47기) 연세대 로스쿨 진학
- 진상범(45기) 성균관대 로스쿨 진학
- 김나현(48기) 미국 유펜대 경영대학원 진학
- 최상혁(45기)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진학
- 박도형(48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김현진(46기) 서울대 대학원 불문과 진학
- 신준섭(48기) 로스쿨 진학 준비
- 송창후(46기) 로스쿨 진학 준비
- 권하영(49기) 서울대 대학원 미학과 진학
- 박상윤(47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김가희(49기) 연세대 로스쿨 진학
- 윤영식(47기) CPA 준비
- 장현수(49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 조민준(49기)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진학
- 최혁중(49기) 서울대 로스쿨 진학



노찬우 군 이지원 양

### 장학회 45기 노찬우, 47기 이지원 CPA 합격

방일영장학회 45기 노찬우 군(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과 47기 이지원 양(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이 2024년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 제15기 탈북장학생 9명 선발

재단은 12월 4일 제15기 탈북장학생 9명을 선발했다. 이로써 2010년부터 선발된 탈북 출신 장학생은 모두 142명으로 늘어났다.

탈북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했으나 대다수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어려운 형편으로, 재단은 이들 가운데 생활이 어렵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경희대·국민대·동국대·서강대·숭실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각 1명이다.

4월\*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결국 우리와 맞닿아 있는 현황

말씀해 주신 분 **마영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쏘아 올린 수천 발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을 상치투성으로 만들었다. 중동의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한 포성들이 어떻게, 왜 울리게 된 걸까?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시점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원에 계신 마영삼 연구위원님께서 2024년의 첫 강연을 들었다.

### 전쟁의 역사적 배경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일어났던 시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당시 협상국이었던 영국은 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교 정책을 강행했다. 1차적으로 아랍인과 갈등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의 맥마흔이 아랍의 지도자였던 후세인에게 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다. 만약 영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한다면, 팔레스타인에 아랍인들만

의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맥마흔 선언(1915)이다. 그러나 영국은 이에서 멈추지 않았다. 2차적으로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던 유대인들과도 비슷한 약속을 한 것이다. 영국의 뉘푸어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며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것이 뉘푸어 선언(1917)이다.

아랍인과 유대인은 영국의 약속을 굳게 믿었지만, 사실상 영국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동일한 지역에 두 국가와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만행위를 펼친 것이다. ‘한 지역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약속이 당연히 실현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국제연합은 협상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협의되지 않았다. 이후 아랍인과 유대인들은 영토를 중심으로 끊임 없는 중동 분쟁의 서막을 올리게 되었다.

### 전쟁의 발발 과정 및 영향

위 배경을 바탕으로 1948년부터 1973년까지 4차례의 중동 전쟁이 발생했고, 2006년에는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게 된 가자 지구를 강경파인 하마스가 지배하게 되었다. 2014년 7월에는 가자 지구 분쟁이 일어나며 그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로부터 9년이 지난 2023년,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며 전면전이 발발하며 시작됐다. 본 전쟁은 하마스가 로켓탄 공습을 넘어 아예 지상군의 기습 침공까지 실시하였고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도 일삼았다. 이에 이스라엘은 즉시 반격하며 전쟁이 가속화되었다. 이 전쟁은 2024년 현재까지도 사그라들지 않



는 상황이며, 약 4만 명의 사망자와 8만 명가량의 부상자가 생기는 등 끔찍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 대한민국의 외교적 방향성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마영삼 위원께서 ‘한국의 대(對)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외교 정책’을 몇 가지 제시해 주셨다. 첫째, 역사적 사실을 숙지하고, 구체적인 외교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국가들이 얽혀있는 일이다. 따라서 충분한 역사적 숙고를 통해 명확한 태도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과의 협력 및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극적 원조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첨단 기술 및 정보력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국가이다.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여 한국 기업들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이 일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한류를 활용

한 공공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K-Culture라는 이름으로 대중문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 문화적 리더십을 통해 창의적인 외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세계사를 되돌아보며

누군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의 조그마한 비극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역사적으로 특정 사건들은 전 세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반드시 끼쳐왔다. 더불어 자국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전 지구적 관심을 가진 자만이 정의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 외교임을 기억하며,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 강성은<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 장학회 51기>

5월\*

## 통신 기술로 세계를 바라보다

말씀해 주신 분 **신동훈**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과거와는 다른 현대사회만의 차별화된 점을 설명하려면 통신 기술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TV로 뉴스를 시청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지하철 정보를 확인하고,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상을 살고 있다. 신동훈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께서는 5월 월례회에서 현대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통신 기술 발달의 역사와 함께 미디어의 변화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셨다.

### 타이타닉호를 통해 살펴본 과거의 통신 기술

1912년, 타이타닉 호가 대서양 일대에서 침몰한 이후 뉴욕타임스는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고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신문 보도를 내놓는다. 보도 내용에는 생존자 명단, 구조 인원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구체성에 깜짝 놀라며 통신 기술의 발달을 몸소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강연자께서는 정보화 시대의 시작은 이미 19세기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셨다. 1844년 모스는 전신을 발명하고, 1876년에는 벨이 전화 특허를 냈다. 1904년 시작된 무선 전신 기술은 타이타닉에 탑재되



어 배의 상황을 육지 및 다른 배에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통신 기술의 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무선으로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을 시작으로 라디오, TV가 차례로 발명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시간의 동기화: 열차와 전신을 통해 이루어지다

근대사회를 대표하는 철도의 등장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힘과 속도를 보여 주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등장과 함께 인류는 철로 옆에 전신을 설치하였다. 전신을 설치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열차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신문사들은 전신을 이용하여 빠르게 뉴스를 제작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철도 회사 및 지역마다 각기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전신이 시간을 하나로 통일시켰다.

시간의 통일 덕분에 인류는 각자의 시공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 미디어는 인류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돈된 틀을 제공하였고, 우리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통신의 발달이 시간을 '동기화' 하게 되었다. 신 차장께서는 과거 종교 및 행정 권력이 소유하며 통제하던 시간은 '동기화'를 통해 비로소 전 인류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다. 과거의 시계 건축물이 야간 통행금지 등 민중의 행위를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니 시간 동기화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지배 권력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통신

과거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를 배와 마차로 연결되는 물자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여 지배할 수 있었다.



로마의 고위층은 필사 노예를 이용하여 일주일 안에 영토 전역으로 정보를 전달하였다. 조선의 경우 봉수대를 통해 전국 팔도의 변란 및 전쟁 발생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운영하던 나라였다. 영국의 해저 케이블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인도와 같은 식민지와 연결되어 정보의 빠른 전달 및 지배를 꾀하였다.

이처럼 빠른 속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다. 통신의 발달을 활용한 정보는 곧 권력 유지의 본질이었고, 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다. 놀랍게도 과거 로마의 물자 유통망, 조선의 봉수대, 영국의 해저 케이블 지도와 전선, 교통망 등 21세기의 통신 네트워크망을 겹쳐 보면, 과거와 현재의 네트워크 구조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배 구조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중요도에 따라 설정되는 통신망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통신의 발달로 과거보다 세계가 빠르게, 광범위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강연자께서는 통신의 발달이 때때로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빠른 정보의 전달은 전쟁 동원력 및 속도의 증가, 가짜뉴스 및 오보로 인한 피해 규모 증가라는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소통망의 확산으로 사건 하나하나의 파급력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배 권력은 사라졌지만 정작 우리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통신으로 연결된 세계

오늘날 우리는 정보 송출 시대, 정보 공유 시대를 거쳐서 '가상 거주시대'에 살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던 인류는 직접 정보 전달자가 되어 소통하기도 하며, 메타버스로의 매체 진화를 통해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통신 기술은 인류의 삶에 깊게 자리잡았다. 이제 우리는 통신망에 대해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을 느낀다. 이번 강연은 나에게 다시 한 번 통신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리 **성이수** <고려대 경제학과 2학년 · 장학회 51기>

## 6월\* AI시대의 ‘협력’ 과 ‘창조적 파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견학

말씀해 주신분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

현대사회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업무 수행 방식, 협력의 방식, 그리고 개인의 역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 5일 방일영 장학생들은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적 기업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견학했다. 강연을 맡아 주신 조장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님께서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과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창조적 파괴에 대한 통찰을 공유해 주셨다.

세계적인 IT 기업의 모습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11층 메인 로비에 입장하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유리창 너머로 넓게 펼쳐진 광화문 일대의 풍경이 보였다. 노을 진 저녁 하늘과 빛나는 도시의 전경이 무척 아름다웠다.

### AI 시대의 핵심 역량: 협업 능력과 창조적 파괴

조 전무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늘>이라는 주제 강의를 진행해 주셨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AI와 직결된 주제인 만큼 장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집중하여 강의를 들었다. 무엇보다도 조장래 전무님의 깊이 있는 강연은 AI가 우리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고

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조 전무님은 AI가 단순히 기술적 도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셨다. 의료,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영향력을 설명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기술적 지식이 아니라 ‘협업’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임을 강조하셨다. 조 전무님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업이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하셨다. 협력이 단순히 팀워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덧붙이며, 협업 능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간임을 강조하셨다.

장학생들은 주로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을 질문했는데, 조 전무님은 경쟁 중심의 교육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의 많은 인재들이 협력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협업 역량과 포용성, 그





리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하셨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단순히 지식 역량뿐만 아니라 협업 역량, 스트레스 관리 능력,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태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는 인재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강연을 통해 AI 시대의 도전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협력 방식, 그리고 개인의 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변화가 요구됨을 깨달았다.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서 장학생들은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다.

###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 체감

강연이 끝난 후 사무실 견학을 시작했다. 실내 공간은 전통적인 사무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다. 직사각형의 수직적이고 경직된 분위기 대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환경이 펼

쳐졌다.

밝은 빨강, 주황, 노란색으로 칠해진 의자들은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된 책상들은 자유로운 사고와 협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기가 구비된 방과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방음벽이 설치된 폰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다. 다양한 게임 기기와 대형 모니터가 구비된 레크리에이션 룸.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마기기가 갖춰진 공간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독특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복지 시설은 회사가 단순히 업무 장소를 넘어 혁신과 다양성 창출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직원들이 창의적 사고를 발휘하고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핵심이 바로 이러한 창의적인 업무 환경에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정리 송예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 · 장학회51기)

9월\*

## AI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말씀해 주신분 조대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여행하는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남긴 명언이다.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인생을 탐험해야 할까? 9월 월례 세미나에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새로 부임하신 조대곤 교수님께서 “AI 분야의 현황과 국내 기업에의 적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셨다.

### 세상을 선도하는 “매그니피센트 7”

신문 경제면을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매그니피센트 7”(M7)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이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AI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기업에서도 챗GPT 등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현대백화점은 AI 카피라이팅 시스템 ‘루이스’를 도입하여 마케팅 문구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루이스를 사용할 경우 4시간 이내로 카피가 도출된다. 사람이 작성하는 카피가 완성되기까지 적어도 2주 이상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교수님께서서는 이렇듯 AI 기술이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신다.

통계적으로 확인해 보아도 인공지능 분야는 그 어느 학문 분과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의 영역

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그리고 생성 AI(Generative AI)이다. 이전까지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 전자 상거래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활용되는 지도학습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향후 3년 안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룰 분야는 생성 AI이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생성 AI 부문에 투자된 돈은 무려 25조가 넘는다.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사이에는 더 큰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놀랍도록 똑똑하고 충격적이지 않게 어리석은 AI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최예진 워싱턴대 교수가 AI는 “놀랍도록 똑똑하고 충격적이지 않게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처럼 분명 AI의 활용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교수님께서서는 AI 기술의 활용법과 관련된 놀라운 실험 결과를 소개하셨다.

과제 유형에 따라 생성형 AI의 활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이 필요한 “제품 혁신” 측면에서는 성과가 40%로 높아지지만, “비즈니스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23%로 하락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생성형 AI가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결과물이 수정하여 제출한 결과물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비슷한 유형의 실험을 반복하자 생성형 AI는 노동집약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가장 큰 효율을 드러내며, 특히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처럼 틀려도 큰 위험이 생기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이 도



출되었다. 즉, AI와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AI가 유용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잘 구분하여 활용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AI,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다. 교수님은 그동안 29CM, 무신사 등 다양한 국내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셨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을 위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도우셨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객 리뷰를 언제 부탁하는 게 좋을까”가 있다.

구매 직후 가장 이른 시점에 고객에게 리뷰 요청을 보냈던 업계 관행과는 달리 교수님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 오히려 리뷰 요청 시점을 늦췄을 경우 요청 메시지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파악하셨다. 이를 바탕으로 무신사에 리뷰 요청 시기 변경을 제안하셨고, 무신사 측에서 실제로 제안을 받아들여 리뷰 요청 시기에 변화를 줌으로써 이전보다 확실한 리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의 중요성

강연을 마무리하며 교수님께서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남겨주셨다.

첫째, 문제를 잘 푸는 사람보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인간이 평생 학습해 온 양을 압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어진 물음에 대답하는 능력은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인공지능에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때로는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지우거나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영역 몇 가지를 정해서 전문가들의 파워블로그 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업하고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대곤 교수님께서서는 지금 겪는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 얻게 된 관점들을 잘 간직할 것을 당부하셨다.

정리 서기은<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 · 장학회51기>

10월\*

##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무엇일까

말씀해 주신 분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

여름의 무더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살며시 스며드는 10월, 월례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수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한 강연을 만나 볼 수 있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 주간님께서는 보수 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일보에서 근무하시며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 보수의 기원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1790)은 보수주의에 대한 최초의 저서로 보수주의를 이론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급진적 변화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의 본질과 태도를 잘 보여준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찬사를 보내며 영국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급진주의자를 비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가 아닌 영국의 정치체제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 질서를 지키고 안정된 점진적 변화를 지향하는 영국 정치 체제를 옹호한 것이다.

한편 그의 글에 ‘보수주의’라는 용어나 이념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없다는 사실은 보수주의가 본질적으로 자체를 세일즈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념화하지 않는 안티(anti) 개념임을 보여준다. 보수주의는 급진적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태도에 기반하며, 기존 질서와 가치의 점진적 수호를 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주의는 이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태도나 접근 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보수는 함부로 바꾸지 말자는 것

보수의 탄생 배경과 본질에 대해 듣다 보면 ‘보수는 결국 변화를 거부하는 입장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주간님께서는 보수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바꾸는 데 신중하자는 입장임을 설명하셨다. 세상은 복잡하며, 단순히 계획해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보수이다. 즉, 인간의 설계도를 신뢰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거치며 만들어 놓은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선부른 변화와 조작은 상황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진보는 세상을 더욱 낮게 만들 해법이 존재하며, 그 해법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수는 내과 의사, 진보는 외과 의사”, “보수주의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하다. 진보주의자들은 과감하고 야심 차다” 등의 표현으로 양 진영의 입장을 정리해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보수는 긍정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세상을 쉽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관에 영향을 준다. 주간님은 앞선 세대가 나은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





진보지만, 보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역사를 거치며 최선의 노력을경주한 결과로 본다고 설명하셨다. 각 진영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다. 진보는 정부의 계획과 실행으로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보지만, 보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사회구성원 개개인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보수는 정부의 역할은 사유재산권 보장, 법치주의 확립 등을 통해 개개인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보수는 현실적 관점을 받아들인다

보수와 진보는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본 축으로 작동한다. 이는 혈액형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륜과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젊은 세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상과 낙관으로 진보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기성세대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관점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는 경제철학, 외교·안보, 사회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분단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정치적 이념을 나누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보수는 급진적 변화를 경계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며 안정된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처럼 보수는 단순한 정책이나 철학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생각의 DNA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리 **조민지**(서울대 인류학과 2학년 · 장학회51기)

11월\*

## “내가 청년들을 만나는 이유”

말씀해 주신 분 묘장 스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11월 6일, 스페이스 라운에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묘장 스님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청년 관련 복지사업과 각종 구호사업을 진행해온 묘장 스님은 “내가 청년들을 만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방일 영장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7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더 많은 이들을 구출하고자 1995년 2월 25일 설립되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구제 중생의 원력으로 불교계의 인적, 물적 복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민복지 지원과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묘장 스님은 대학생 대상 강연을 하던 중 상경한 학생들이 홀로 생활하며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접했다. 이에 재단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청년밥심’ 사업을 고안하게 되었

고, 대학교와 인근 사찰이 연계하여 점심 공양을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 6월 5일과 12일, 경희대 근처 연화사에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영양가 있는 사찰음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화사를 시작으로 대학가의 사찰들과 연계해 ‘청년밥심’ 사업을 확장해갈 예정이다.

또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기획된 후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자체 콘텐츠이다.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과 템플스테이를 접목하여, 결혼 기피나 저출산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고안된 것이다.





지난 4월 인천 강화군 소재 전등사에서 진행되었던 ‘나는 절로’에 남녀 각각 10명씩 선발함에도 남성 147명, 여성 190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 위주로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방 단위로도 확장될 예정이고, 각급 지자체, 기업, 사찰과 ‘나는 절로’ 진행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묘장 스님은 국내 복지사업은 물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구호사업을 통한 구휼에도 매진했다. 2013년 1월 13일 발생했던 아이티 대지진 현장에서 묘장 스님은 ‘더프라이스’라는 국제구호단체를 결성해 국제구호사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9,000명에 육박한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네팔 대지진 당시 7.8 규모의 1차 지진이 끝난 뒤 구호 활동에 나섰다. 이에 구호 활동 도중 2차 지진이 발생했고, 생사를 오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국제구호사업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작년에 3000명 가량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모로코 대지진 현장에서도 구호사업을 진행하는 등 세계 곳곳의 위험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이어왔다.

오랜 시간 청년과의 만남, 각종 복지 및 구호사업을 이어온 묘장 스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방일영 장학생들은 묘장 스님의 구휼 정신과 소통 정신을 전해 들으며 만남과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생한 구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직접 발로 뛰며 사회 곳곳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묘장 스님의 강의는 장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울림을 남겼다.

정리 김준이 <서울대 경영학과 2년·장학회 51기>



**바로 본 대한민국 정사(박석홍 지음)**

중국 동북공정, 일제강점기 근대화론, 민족주의 전체주의사관, 브루스커밍스의 사회주의 사관을 비롯한 민중사관, 분단사관 등의 오류와 왜곡을 검증한다. 글방과 책방, 23,000원

**정원의 위로(김선미 지음)**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들을 탐방해 소개하면서 정원의 문화사, 기후위기 시대 정원의 기능, 정원의 미학과 치유기능을 기술했다. 민음사, 25,000원



**전쟁의 무기, 무기의 전쟁(김태훈 지음)**

지난 10년간 진행된 국산 무기 개발과 전략화, 수출, 그리고 외국 무기 도입의 전말을 공개해 K방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한다. 더퍼플미디어, 18,000원

**디자인, 기억의 아카이브(송진원 지음)**

디자인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 사건, 현상을 기록했다.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를 살피고 디자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를 모아 공유하고 기록했다. 라이크디스프레스, 17,900원



**말이 되는 글, 글이 되는 말(김호성 지음)**

예비 방송저널리스트를 위한 언론 실무 학습서. 방송 뉴스의 개념을 이해하고 뉴스, 쓰기, 말하기 등 이론보다 주로 현장과 연계된 미디어 트레이닝을 기술했다. 일파소, 22,000원

**북한 김씨 일가가 민주주의를 만난다면(박수유 지음)**

남한의 민주화가 도약하던 시기 북한이 대남 인식과 전략을 조정해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좌표는 어디인지,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린스, 18,000원



books  
new

## 재단지원 신간안내



### 어른다움(신창운 지음)

높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어른조사는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어른조사 보도 역시 신뢰성 및 정확성을 추구하는 아카데미즘과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리북, 15,000원

### 바람이 일어나다(김형국 지음)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지낸 한국 현대 미술사의 거목 추상화가 김병기의 삶을 통해 한국화단 전개의 중요 단면을 살펴본다. 나남,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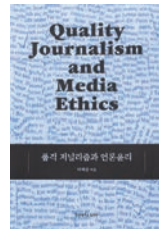


### 거쉬업(허의도 지음)

대한민국 미래 사회 대전환의 돌파구는 MZ세대의 거쉬업에 달려 있다. 바닥을 차고 오르며 하늘로 분출하는 괴짜들의 거대한 힘을 통해 새 경제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정서재, 18,500원

### 품격 저널리즘과 언론윤리(이재진 지음)

품격 저널리즘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윤리적 실천 지침을 제시한다. 언론의 윤리적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 취재원 윤리, 사회적 약자 보도 윤리, 그리고 윤리에 대한 법원과 언론의 인식 충돌도 다룬다. 한양대 출판부, 25,000원



### 왜 한국을 싫어하나(박한우 지음)

한류가 세계적으로 호감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중국, 일본 등에서 반한 감정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충분히 다루지 않은 반한 감정에 대해 디지털 인문학 방법을 적용하여 알기 쉽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대처 방향을 모색한다. 영남대 출판부, 22,000원

### 이일선과 인술의 실천가들(전정희 지음)

나병 등을 가난 때문에 치료 못해 죽어가는 처지에도 울릉도에 첫 병원을 세우고 영락교회, 경동교회 목사로 활동한 이일선 목사의 삶을 재조명한다. 책:봄, 15,000원





## 재단지원 신간안내



### 신의 개입(송의달 지음)

미국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정책이 갖는 함의와 배경, 최근 미국 사회의 변화를 살피고 트럼프가 몰고 올 혁명적 변화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아본다. 나남, 24,000원

### 탈북 32년, 두만강을 넘어 시드니(김재홍 지음)

북한투자전문 호주 회계사의 탈북 30년 비즈니스 이야기. 북한·한국·호주 등 환경과 체제가 다른 곳에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찾고 그의 도전 과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융합 가능성을 엿본다. 황금알, 20,000원



### 소통하기(김혁조 지음)

행복을 위해 어떻게 소통을 활용할지에 대한 탐색. 미디어와 문학, 여행, 음식 등을 통한 소통 방법을 알아보고, 소통의 다양성과 일상성을 드러내고 삶을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을 탐구한다. 한울, 16,800원

### 정치적 인간의 우화(양선희 지음)

한비자의 글은 펍트에 기반해 주장을 피력하고, 쉽고, 강렬하고 메시지가 분명하다. 그를 통해 정치적 인간의 본질, 성공하는 정치인으로 사는 법을 정리한다. 독서일가, 15,500원



### 박정희·김대중 그들이 만든 세상(강성주 지음)

박정희와 김대중이 추구했던 근대화와 민주화의 엇갈린 길을 조명하고 두 전 대통령이 활동하던 시기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한국 정치의 고비들을 어떻게 보도, 분석했는지 기사를 통해 살핀다. 아웃룩, 35,000원

### 분노와 슬픔의 스토리텔링(송상근 지음)

언론은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면서 절제된 보도를 해야 사회에 기여한다. 국내외 언론상 수상작 분석을 통해 언론이 건강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푸블리우스, 19,000원





**살맛나는 세상, 어메니티 도시 만들기(김해창 지음)**

종합적인 삶의 쾌적함을 뜻하는 어메니티 사상을 바탕으로 기후 위기시대, 개인적 삶과 도시정책 대안으로 어메니티 도시 만들기 소프트 전략을 제시한다. 미세움, 19,800원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조준원 지음)**

언론중재를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살피고 언론조정제도가 가짜뉴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실태와 전망을 실었다. 지금, 20,000원



**대학과 시니어의 만남(윤홍근 지음)**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UBRC)는 고령화 사회의 대안 모델. UBRC 교육 프로그램 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시대 고령인들을 새 자원으로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청람, 25,000원

**나는 왜 일을 하는가(황성혜 지음)**

글로벌 회사의 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쟁하며 나는 치열한 일상을 알린다. 기자에서 글로벌 회사원으로 변신한 새로운 커리어로 어떻게 녹아들었고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소개한다. 새의노래, 17,800원



**산불은 마을을 어떻게 바꿨나(신하림 지음)**

대형화, 연중화, 전국화되는 산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특히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기반해 산불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피해와 영향을 분석한다. 바른북스, 16,800원

**한류의 뿌리(김덕형 지음)**

한류의 뿌리는 한국문화의 근간인 한글에서 비롯된다. 한국 근대사의 주역인 인물 중 한글 인맥을 형성한 주시경 등 위인들의 생애 추적으로 그 답을 찾는다. 21세기북스, 22,000원





## 재단지원 신간안내



### 그래도 단독주택(김등물 지음)

도시인들은 단독주택에 대해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정원이 있는 삶에 로망을 가진 기성세대에게 단독주택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담아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샘터, 16,800원

### 나는 글로벌 기자다(박종문 지음)

지역 언론이 웹 2.0 환경에 대응 투자를 못해 한계를 맞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등장 환경에 지역신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본다. 학이사, 15,000원



### 스포츠 영화로 보는 한국 사회(임정식 지음)

스포츠 영화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특징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탐색한다. 시대별 작품 현황, 스포츠 영화의 시대적 표상과 이데올로기, 흥행 작품 분석, 실화의 영화화 현상과 그 사회적 맥락으로 정리한다. 더로드, 18,800원

### 전쟁 저널리즘(이진희 지음)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론이 어떻게 다뤘는지를 전쟁의 이면까지를 분석하여 올바른 저널리즘의 길을 모색한다. 맑은샘, 20,000원



###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김성진 지음)

남아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이슈별로 다루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각 나라의 상황을 점검하여 21세기 성장 동력인 미래의 땅 아프리카를 이해한다. 나눔, 22,000원